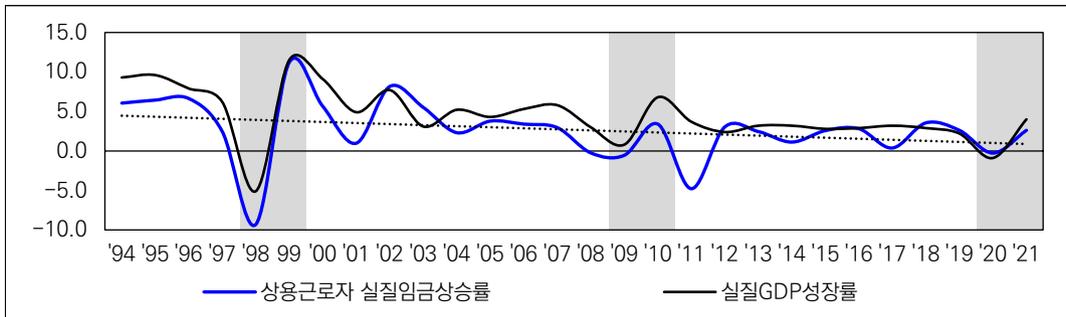


실질임금상승률 추이와 임금내역별 기여도

- 실질임금상승률은 경기변동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며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임.
 - 조사가 시작된 1993년부터 상용근로자의 실질임금상승률을 보면 경기변동과 상관관계가 높았으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 때 실질임금감소폭은 실질GDP감소폭보다 컸던 것으로 나타남.¹⁾
 - 그러나 2010년 이후 실질GDP성장률은 2~3%대에 정체되어 있는 반면 상용근로자의 실질임금상승률은 2011년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하는 등 상대적으로 변동이 컸음. 이는 성과급과 임금협상타결금 등 경기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경향이 강한 특별급여의 변동으로 인한 영향이 이전보다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임(그림 1, 그림 2 참조).²⁾

[그림 1] 실질임금상승률과 실질GDP성장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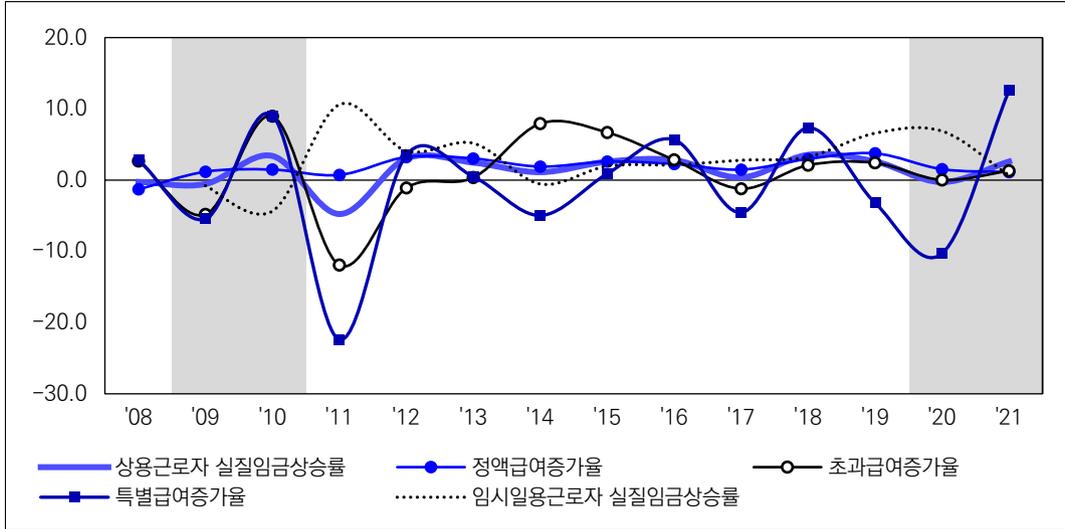


주: 실질임금상승률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기준(1994~1999년은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기준)임.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실질임금상승률은 2012년부터 파악되며 상용근로자의 움직임과 유사한 패턴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도.

- 1) 고용노동부에서 매월 실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부문과 근로실태부문을 조사하고 있음. 임금·근로시간·근로일수 등을 조사하는 근로실태부문은 1993년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로 조사대상이 확대됨. 본고에서는 장기시계열이 가능한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자료를 이용하되, 부문별로 임시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전체근로자로 확대한 자료를 제시함.
- 2) 2010년 이전에는 특별급여의 변동뿐만 아니라 정액급여의 변동도 컸던 것으로 확인됨.

[그림 2] 상용근로자의 임금내역별 증가율과 임시일용근로자의 실질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주: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임시일용근로자 기준이며,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임금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도.

○ 경제위기(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때 상용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위기 이전 대비 크게 하락하였으나, 위기 이후에는 위기 이전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빠르게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

- 1998년 외환위기 때 상용근로자의 실질임금상승률은 위기 이전 기간 평균상승률 5.4%에서 14.7%p 하락한 -9.3%이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에는 위기 이전 3.1%에서 3.7%p 하락한 -0.6%였으며, 최근에 경험한 코로나19 위기 때인 2020년에는 위기 이전 2.3%에서 2.6%p 하락한 -0.3%였음.
- 경제위기 직후 다음 연도의 실질GDP성장률은 경제위기로 인한 하락에 따른 기저를 넘어선 성장률을 보이며 빠르게 회복하였으며, 상용근로자의 실질임금상승률도 위기 이전 평균상승률보다 높았던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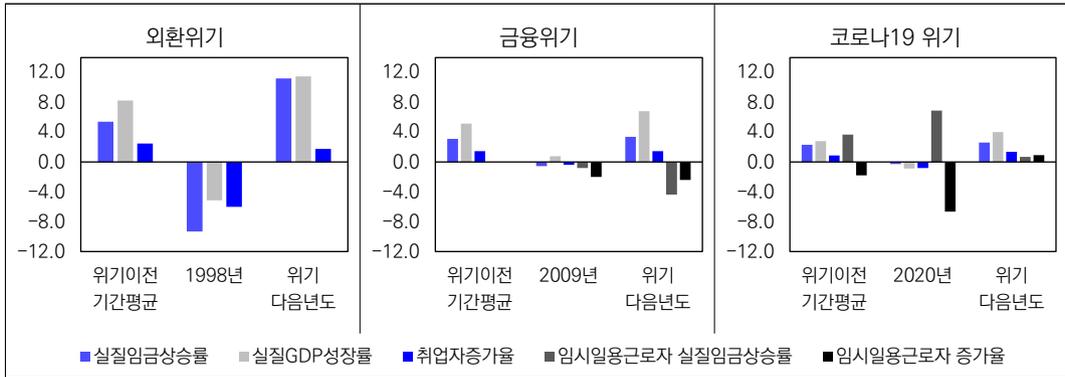
○ 비상용직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보면 금융위기 때는 감소했던 반면 코로나19 위기 때인 2020년에는 크게 상승하면서 다른 모습이 관찰됨.

-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등의 실시로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 등 대면서비스업 부문에서 고용충격이 컸으며, 특히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임시일용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였음.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이들 산업에서의 임시일용근로자의 감소는 구성효과를 통해 비상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한편 금

용위기 때에도 비상용직 근로자는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위기 때와 달리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금융 및 보험업에서 임시일용근로자가 감소한 데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공공행정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영향 등으로 임시일용근로자의 실질임금상승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³⁾

[그림 3] 경제위기 전후 실질임금상승률의 변화

(단위 : %)



주: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기준이며,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임시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실태부문 조사는 2008년부터 시작됨.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도.

○ 2021년 전체근로자(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기준)의 실질임금상승률은 2020년 코로나19의 여파로 저조하였던 임금수준에 대한 기저 등으로 전년대비 1.5%p 상승한 2.0%였음.⁴⁾

- 2021년 상용·임시일용근로자의 실질임금은 각각 2.1%, 1.4% 상승함.
-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용률은 감소(-0.8%p)하고 실업률은 증가(0.2%p)하는 등 노동시장의 지표들은 악화되었고, 실질임금도 0.5% 증가에 그쳐 2015~2019년 기간평균상승률(2.7%)과 격차를 보임.
-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실질GDP성장률을 기록한 2020년 상용근로자의 실질임금상승률은 성과급이 축소되거나 지급시기가 지연되면서 특별급여가 크게 감소한 데다, 휴업과 휴직이 증가하면서 정액급여증가폭이 둔화된 영향으로 0.1% 하락하였음. 반면 속

3)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파악되는 임시일용근로자는 전체근로자의 10.1%(2021년 기준, 상용 이외 근로자(=임시일용+기타)로 확대해도 16.3%)이며,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파악된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28.3%)과 차이를 보임.

4) 실질임금상승률에 대한 기여도 분석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원자료를 이용함.

박 및 음식점업 등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에서 임시일용근로자가 감소한 영향으로 임시일용근로자의 실질임금은 7.3% 상승함.

○ 2021년 전체근로자의 실질임금상승률(2.0%, 100.0)에 대한 상용근로자의 실질임금상승률 기여도(94.3)는 전년대비 높아졌으며, 이는 특별급여가 크게 증가한 데에 기인함.

- 제조업의 경우 특별급여증가율의 기여도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큰 편임.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실질임금상승률(3.91%, 100.0)은 반도체 관련 제조업에서 성과급 확대,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임금협상타결금 확대, 기타운송장비제조업에서 임금협상타결금 지급 등으로 특별급여가 크게 증가하면서 대규모 사업체의 특별급여증가율의 기여도(82.5)가 중소기업(47.5)에 비해 높음.
- 코로나19 위기로 비상용근로자의 고용 감소가 컸던 대면서비스업 전체근로자의 2020년 실질임금상승률은 3.9%p 하락하면서 마이너스로 전환되었고, 2021년에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대면서비스업 부문에서는 특별급여의 감소도 여전한 가운데 정액급여의 감소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나타남. **KLI**

〈표 1〉 2021년 실질임금상승률에 대한 임금내역별 기여도

(단위 : %, %p)

		전체근로자 임금상승률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	정액급여 증가율	초과급여 증가율	특별급여 증가율	임시일용 근로자 임금상승률
전 체		2.04	1.93	0.57	0.05	1.30	0.12
산업	제조업	3.66	3.48	0.97	0.12	2.40	0.18
	대면서비스업	-0.97	-1.08	-1.08	0.05	-0.05	0.11
규모	중소규모	1.30	1.19	0.56	0.01	0.62	0.11
	대규모	3.91	3.75	0.38	0.16	3.23	0.16

주 : 1)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기준임.

2) 대면서비스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변동이 컸던 산업군으로, 주로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의미함.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원자료, 2020-2021.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